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3 일 (8 월 27 일, 2025)

토라 문: 재판장들

주제: 아말렉 - 성소의 재앙, 제 2 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탈무드(산헤드린 20b)에 열거된 세 가지 미쯔보트는 토라의 기록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순서대로만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인들의 설명은:

첫째, 왕은 나라를 전쟁터로 이끄는 역할을 했기때문에 군주제를 확립해야 했다.

둘째, 그런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정복한 후에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입니다.

셈 미슈무엘은 아말렉과 성전 사이의 갈등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을 표명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핵심을 상징합니다. 마치 *레브*(לב), 즉 '심장과 정신'이 인간의 영적 중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은 때때로 나라의 *레브* 곧 심장으로 불립니다.

토라는 아말렉에게 이례적으로 가혹한 형벌, 즉 전멸을 규정합니다. 이 혹독한 심판은 바빌로니아인처럼 이스라엘에 훨씬 더 큰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다른 민족들에게 내려진 더 관대한 처사와 대조됩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가한 영적 위협의 본질 때문입니다. 다른 압제자들은 이스라엘에 피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투마*(טומא; 불결함)은 외적인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핵심인 내적인 성소에는 그들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투마*(불결함)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숨겨진 내부가 아닌 밖으로 노출된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할라카*(הלכה, 신앙의 규범) 원칙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예외입니다. 그들의 영적 타락은 거룩함에서 타락된 것으로 비롯되었기에 이스라엘의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급속히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 이름을 받은 시조로써 에서를 통해 나온 “이삭”의 증손자였기에 그 조상들의 계통안에서 이미 거룩함의 영혼의 불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 불꽃을 키우고 신성한 내면의 본질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악함으로 그 잠재력을 왜곡하여 독특하고 파괴의 침투력 있는 악의 힘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핵심에 불순(투마)을 직접 주입하는 이러한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아말렉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아말렉의 타락한 세력이 계속 활동하는 한, 국가의 숨겨진 심장처럼 안전했던 성전조차도 영적 오염에 취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신성함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울 왕 세대의 사람들 간 벌어졌던 시기와 이간질의 영으로 인해 아말렉의 패배를 터전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전 건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미드라쉬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사람이 정련됨을 알게 하는 내적 영혼의 증거 되는 행위의 하나는 그가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의 정화로 집중하는 사람은 적절성의 도가 벗어난 말을 하거나, 비밀로 해야 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등 무분별한 영에 엮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영적 뿌리와 단절되었음을 그러한 행위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개인 범주에서 더 나아간 그러한 퇴행이 만연한 세대는 총체적인 영적 핵심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세대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핵심을 구현한 카도쉬(קדוש, 거룩한) 성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 본질 자체와 단절된 민족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shalom.

참조: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잠 17:4

“입과 혀를 보전하는 자는 그 네뱀쉬(נפשו/영혼)를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 21:23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관자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엘로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 장